

“저 사람 때문에...”

오재호/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조 정재관을 하다보면 공통된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사건건 “저 사람 때문에...”란 것입니다. 가령 “저 사람은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것도 저사람 때문이에요” “천만에!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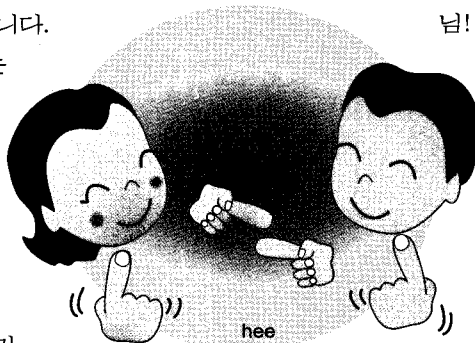
그때마다 묻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단 한 가지라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잠시 조용해졌다가 또 다시 “때문에” 손가락질이 시작됩니다.

중국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앞두고 주인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 마리를 잡아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위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인님! 알도 못 낳는 수탉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수탉이 가만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누가 주인님을 깨우죠. 놀고 먹는 저 양이란 놈을 잡으십시오” 양은 이 말을 듣고 항의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제 털이 있어야 추위를 견디어내십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털을 가진 저 개를 잡으십시오” 개가 이 말을 듣더니 점잖게 나섭니다. “주인님! 저 없으면 누가 도둑을 지킵니까? 마땅히 하루종일 먹고만 사는 저 말을 잡아야합니다.”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주인님! 나들이하실 땐 누구 등을 타고 나가십니까? 아무렴은 소똥에 비견하시겠습니까?” 소가 나섭니다. “제가 없으면 저 넓은 밭을 누가 갈죠? 풀꿀겨리는 저 돼지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돼지가 나섭니다. “주인님! 평만 같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도 제가 있어야 먹고 내놓는 것이 있어야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름을 만들 수가 있습

니다.” 싸움은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매우 화가 난 주인은 “그렇다면 너희들 모두를 잡아버려야겠다!”고 고향을 지르면서 시퍼런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러자 거위가 냉큼 나섭니다. “주인님! 알은 암탉이 낳을 수 있으니 제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탉이 나섭니다. “주인 어른의 아침잠을 깨우는 일이야 지나가는 참새도 할 수 있는 일이니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를 잡으십시오. 추위야 내복을 한 벌 더 입으시면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 저를 잔치상에 올려주십시오” 양이 앞줄로 나서면서 하는 말입니다.

마침내 서로 제 목숨을 먼저 내놓겠다고 하는 바람에 주인 진(陣)씨는 잔치날에 가족을 잡는 대신 떡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른손을 들어 상대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손가락질을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손가락 하나는 배우자를 가리키고 있겠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잘못이 한 가지라면 나의 잘못은 세 가지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부학에서 말하는 ‘3:1의 비난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내 가슴을 세 번 치면서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라고 조용하게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결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원한 느낌은 알게 모르게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